

엄유정 개인전 《밤-긋기》



〈밤 얼굴〉

2021

종이에 과슈

32x24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엄유정 개인전 《밤-긋기》

전시기간 : 2021년 10월 6일(수) - 10월 20일(수)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14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및 작가 소개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2021년 10월 6일(수)부터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엄유정(b. 1985, 구미) 개인전 《밤-긋기》를 연다. 엄유정은 미술계가 주목하는 청년 회화 작가다. 회화, 디자인, 출판 등 여러 영역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일상의 풍경을 낮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회화로 옮겨낸다. 자유로운 붓질과 은유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밤'을 주제로 제작한 14점의 신작 회화를 선보인다. 흑백에 가까운 저채도의 선으로 그린 인물과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호기심과 사색을 동시에 품은 인물들의 표정이 밤의 정서를 투영한다.

엄유정은 1985년 구미에서 태어났다. 200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 후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리스트스 갤러리(올라푸스피오르드, 아이슬란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공간 사일삼(서울), 소소(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서울시립미술관(서울), 대전시립미술관(대전), 디뮤지엄(서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서울), 쿤스트페어라인 코스펠트(코스펠트, 독일) 등에서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리스트스 아티스트 레지던시(올라푸스피오르드, 아이슬란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경기창작센터(안산) 등에 입주하여 작업한 이력이 있다.

2. 주요 작품 및 전시 전경

■ 주요 작품



〈밤 풍경〉

2021

캔버스에 과슈

(각) 162.2x130.3cm



〈밤 풍경〉

2021

종이에 과슈

61x48.3cm



〈밤 얼굴〉

2021

종이에 과슈

32x24cm



〈밤 얼굴〉

2021

종이에 과슈

32x24cm



〈밤 얼굴〉

2021

종이에 과슈

32x24cm

■ 전시 전경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전시 전경

3. 전시 서문

밤의 바라봄에 대하여

박미란 | 큐레이터, 학교재 기획실장

엄유정은 이따금 앞서가들이 일렁이는 조그만 세계에 몰두한다. 앞새의 유연한 울동에 작가가 그어내는 붓질의 무게를 투영해 본다. 피어남의 과정을 버티는 앞서가들과 마르는 절화의 가느다란 시간이 무채색 물감 위에 뭉개어진다. 무겁지 않은, 그래서 더 생경한 어둠이 화면 위에 내려 앉는다. 대상은 저마다 낮선 덩어리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윤곽은 한층 간결해진다. 호기심과 사색을 넘나드는 <밤 얼굴>(2021)들은 누구를 가만히 응시하며,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일까. 어깨의 높낮이가 정서의 층위를 따라 오르내린다.

밤의 시각은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본다. 그 시야는 작가가 대상을 그리는 과정의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예를 들면 절화를 한 움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이리저리 굴러보며 관찰하는 일이다. 다른 방향과 각도에서, 또 다른 태도로서 바라보면 무언가 새로운 모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여러 날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대상은 분명 다른 존재가 된다. 돋보이는 특징일수록 먼저 사라진다. 또는 그렇게 의도된다. 식물의 색을 지우자, 좀처럼 보이지 않던 윤곽이 드러난다. 익숙한 표피 아래 어딘가 낮선 면모가 고개를 든다.

조명을 끈 화면 위를 지나는 빛은 꿈속의 말처럼 모호하다가도 밤중의 청각처럼 곤두선다. <밤 풍경>(2021) 연작에서 장면은 흑백에 가까운 저채도의 붓질로서 묘사된다. 사물을 작업대 위에서 만져가며 살피는 일과 달리, 보다 큰 풍경을 관찰하고자 하면 스스로 장면 안에 걸어 들어가야 한다. 바라봄의 과정에는 더 많은 감각이 관여하게 된다. 온도와 습도, 소리와 냄새가 총체적인 경험을 이끌어낸다. 화면 속 나무의 가지와 줄기, 잎과 꽃의 경계가 흐트러진다. 세밀한 구조에 앞서 전체의 윤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밤의 풍경은 작은 요소들을 괄호 속에 넣어둔 채, 하나의 몸이 되어 또 다른 양감을 드러낸다.

엄유정의 회화는 낮설고도 익숙한 오늘을 가쁜한 붓으로 그려낸다. 회화의 과정, 그 바라봄의 연속 가운데 평소의 풍경이 탈바꿈한다. 늘 그곳에 있었지만 잊히는 것들, 조명 바깥의 이야기들이 장면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빛은 무겁지 않아서 더 특별한 어둠을 그린다. 메우기보다 긁는 움직임으로, 섬세한 앞맥을 따라가다 문득 먼 곳의 능선을 내다보는 그런 선으로서다. 서사는 하나의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발걸음을 내디딘다. 밤의 화면들 사이에 머물며, 이내 마주하게 될 낮의 표정들 또한 기대해 본다. 다음의 얼굴들은 또 다시 누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무엇을 남몰래 기억하고 있을까.

4. 작가 약력

엄유정

1985 구미 출생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21 밤-긋기,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퇴유, 소쇼, 서울
- 2019 아라우카리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6 사막 나무늘보 빵 사람과 같은 것들, 갤러리 팩토리, 서울
- 2014 테이크 잇 이지, 유 캔 파인드 잇, 공간 사일삼, 서울
- 2013 고요한 순간, 리스투스 갤러리, 올라푸스피오르드, 아이슬란드

단체전

- 2021 식물예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BGA 쇼룸 파트3, BGA마루, 서울
 BGA 쇼룸 파트2, BGA마루, 서울
 플랜트씨의 가구들, 김희수아트센터 아트갤러리, 서울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 KF갤러리, 서울
 나인 블링크스, 쉬프트, 서울
- 2020 사랑의 기술, 토탈미술관, 서울
 사각사각-윙-또르르, 윌링앤딜링, 서울
 초대 거부 - 파트. 2, 단원미술관, 안산
 초대 거부 - 파트. 1,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탄수화물 휘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포레스트 뮤지엄,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갤러리, 춘천
 호텔사회, 문화역서울284, 서울
- 2019 베이커드 셰이프, 북촌전시실, 서울
 오픈코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아이 드로우: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디뮤지엄, 서울
- 2018 드로-인, 드로잉,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초상과 회화. 예술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팩토리2, 서울
 인덱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6 더 스크랩, 동대문구 왕산로9길 24, 서울

- 아시아 쿨라 쿨라-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2010 모노폴리2010, 쿤스트페어라인 코스펠트, 코스펠트, 독일

프로젝트

- 2021 낮설고 가까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0 경기창작센터 온라인 VR영상 오픈 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6 시흥시 찾아가는 아동미술관 '아트캔버스' - 도시관찰일지, 시흥

레지던시

- 2020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9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3 리스투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리스투스 아트스페이스, 올라푸스피오르드, 아이슬란드

수상

- 2021 골든 레터(최고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독일 북아트 재단, 라이프치히, 독일